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06

2019.2.24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
리가 있오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14~15

오늘의 주요기사

- 2-3면 유유허청 특집
- 2면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4-5면 창립30주년 특집 - 가치
- 6-7면 목회칼럼
- 8면 아가나들이, 알립니다

교회일정

- 3/3(주일) 교사대학(1)
- 3/5(화) 성찬주일
양육클래스, 늘푸른대학 개강
- 3/6(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7교구)
"재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
- 3/10(주일) 정기당회, 교사대학(2)
- 3/13(수) 겨자씨인도자교육 시작
- 3/15(금) 겨자씨모임 개강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2019년 제직수련회

올 한해 교회 살림을 맡을 제직들을 소개하고 다가올 시간들을 향해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제직수련회가 2019년 1월 27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로비의 다과로 시작한 제직수련회는 제직을 맡은 교인들이 대예배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120여 개 제직부서와 부서장, 교역자 소개가 있었고,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의 특강으로 이어졌다. '유·유·청·청'이라는 푸르른 꿈을 안고 교회의 새로운 성장을 기원하는 제직들의 소망이 이날의 행사에 고이 담겼다.

함즐함울

유유청청의 해 특집 | 초등부 봄맞이 수련회

증인? 어? 증인?

햇살뜨락 초등부에서는 봄맞이 수련회가 2월 16일(토)에 “x o? o? x o? (증인? 어? 증인?)”이라는 주제로 초등부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함께 말씀, 강의, 조별 활동, 코너 학습 등을 통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제자들과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도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즐겁고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손모션 활동을 통해 사도행전의 전체 스토리를 마음에 담는 시간과 더 나아가 이를 보드 게임을 통해 심화함으로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특별히 마치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뜨거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도 감사했습니다. 조를 맡아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 주신 조 담당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찬양과 코너 학습,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였습니다. 봄맞이 수련회를 통해 햇살뜨락 초등부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씨앗들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은영 목사

유유청청의 해 특집 | 소년부 봄맞이 수련회

함께 세워가요!

소년부 친구들은 “함께 세워가요(단 2:18-19)”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6일(토), 소년부실에서 봄맞이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즐거운 찬양과 말씀, 코너학습 그리고 영화 묵상을 통해서 소년부 친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써 소년부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의 묵상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생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고, 마치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냥 어릴 것 같았던 아이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 주님의교회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정호영 전도사 / 소년1부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기도 용어 편 1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X) :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O)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와 같이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당신이 주신 돈으로 이것을 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표현이다. 기도할 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직접 들으시는 분이므로 2인칭이다. 우리말 2인칭 ‘당신’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 없다. ‘당신’은 3인칭에서만 극존대어로 쓰이는데,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당신’이라고 부른다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X) :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O)

기도를 끝낼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이 동사 ‘기도하다’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써야 한다. 5분이나 10분전에 기도를 시작했으므로 문법적으로는 이미 과거 또는 현재완료가 되어 동사 ‘기도하다’의 과거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祈禱)는 글자 그대로 그 핵심이 하나님

께 아뢰는 우리의 간구다. 간구의 내용은 소원이며 소원은 미래 지향적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마무리 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끝내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우리 성도님들이(X) : 저희들이, 교회의 권속들이(O)

국어 존대법에서는 청자(聽者)가 최상위자일 경우 다른 어떤 인물에게도 존대를 쓸 수 없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셨어요.”에서, 청자인 ‘할아버지’가 최상위자이므로 ‘아버지’와 ‘나’는 존대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 “할아버지, 아빤이 갔어요.”가 맞는 표현이다. 공중기도에서 기도 인도자는 회중과 동일한 입장, 동일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회중을 가리켜 ‘우리 성도님들’이라 존대를 해서는 안 되며, ‘저희들이’거나, ‘교회의 권속들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다.

함줄함울

유유청청의 해 특집 | 중등부 겨울수련회

‘남남남’ 빵으로 하나 된 우리

‘혼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혼자 먹는 밥을 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은 누구보다 ‘혼밥’을 자주 합니다. 바쁘게 몰아치는 학원 스케줄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혹은 패스트푸드점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하고 다음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외로움과 쓸쓸함은 해결되

지 못한 채 식사를 마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식탁을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일어날 깊은 교제와 공감의 시간을 꿈꿨습니다. 아이들은 수련회의 매 순간 식탁에 둘러앉았고 먹었습니다.

그 결과 방언은 터지지 않았지만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터졌고, 하늘의 환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앉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친 후 숙소에서는 밤새 천사들의 소리가 온 교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련회 후 한 아이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는 경쟁하고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빵을 양보하는데 괜히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 이번 겨울 수련회

는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하시고 함께 식사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팝콘트리 중등부가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상현 목사



감사편지 | 세이브 더 칠드런

주님의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신생아살리기캠페인 담당자입니다.

신생아살리기캠페인 모자뜨기에 참여해주신 주님의교회 관계자분들과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신생아살리기캠페인 2019년도 중반을 넘어 곧 선적을 앞두고 있으나, 사무실로 도착한 모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4만 개의 모자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나 모자 개수의 부족함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에, 주님의교회에서 전달해주신 1,267개의 모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전달하신 모자는 아프리카의 체온 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신생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신생아살리기캠페인에 2015년에는 1,340개, 2017년에 1,242개, 2018년에 1,856개, 2019년 1,267개의 모자까지, 매 시즌 많은 모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신생아살리기캠페인에 참여해주시는 주님의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신생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섬김과 나눔 늘푸른대학에서 생명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신생아 모자를 2019년 1월 29(화)에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전달하였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 함줄함울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⑥ 특별기고

가치, 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 기준, 사랑과 정의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그 여섯 번째 글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창호 교수의 글입니다. 이번 글이나 발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다음 호에 수록하여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제 순서

1. 한국사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교회가 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창립 후 30년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2. 소통_교회의 언어는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용어와 일상어와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사회와 소통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3. 정치_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동행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봅니다.

4. 경제_이 시대의 경제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경제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5. 교육_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급변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6. 가치_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출몰하고 충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다양한 가치들을 바라보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7. 환경_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자연 보호와 개발의 문제, 원전과 에너지 문제, 생명권과 동물권 등,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자연에 대해 성찰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적이다. 공적이라 함은 교회공동체를 포함하여 전체 세계를 궁극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관(혹은 기독교윤리적 인식)에 근거하여 응답하고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을 기독교적으로 안내할 소명이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치관들이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신자들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반응하고 또 참여할 것인가?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는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의 핵심은 사랑과 정의이라는 점을 견지하며, 사랑과 정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동등과 배려

미국 예일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였던 아웃카(Gene Outka)는 기독교 사랑을 동등배려(equal regard)라고 정의한다. 동등과 배려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먼저, ‘동등’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혹은 평가)과 연관된 개념이다. 기독교 사랑의 대상은 모든 인간이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며, 모든 인간을 사랑하되 그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각각의 대상이 갖고 있는 특수한 조건이나 속성에 근거하여 가치를 판단하고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뜨겁게 사랑할 것인지 대충 사랑할 것인지, 계속 사랑할 것인지 그만 사랑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모

든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 ‘그가 인간이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 그를 극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는 도무지 축소할 수 없는 객관 가치의 존재이기에 또 그 어떤 누구에게도 환원될 수 없는 혹은 환치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irreducibly valuable) 존재이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랑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다 바쳐,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 때문에, 오직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도무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존재가 되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배려’는 사랑의 주체의 헌신과 연관된 개념이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타자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감정의 상태 등 ‘내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타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열정 뿐 아니라 구체적 실천까지도 내포한 개념이라는 말이다.

사랑의 대상의 필요, 바램, 행복(복지), 최선 등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바라보며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러한 것들의 충족과 실현을 돕고자 한다. 특별히 나의 사랑에 대한 타자의 대가와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해 순전한 이타적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오직 적대적 반응만이 돌아온다 해도 지속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의 하나님

원수 사랑의 계명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보통 사람들은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 못 할 대상은 없다는 뜻이 된다.



이창호 교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독교 문화사역의 신학적 토대에 대한 성찰과 교육의 힘>(2016), <율법과 복음론과 "두정부"론의 상관성과 사회윤리적 함의 탐색 - 루터와 바르트를 중심으로>(2016), <종교개혁의 '개혁적' 성윤리 탐색 - 루터와 칼뱅의 남녀관계성과 결혼 및 성적 결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2017), <일상의 긍정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기반 모색 - 루터와 테일러를 중심으로>(2018) 등의 글을 썼다.

사랑 못 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다(마 5:48).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기에 온전하며, 또 대가와 반응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이다.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바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우리가 닮아 사랑해야 할 사랑의 이상이자 모범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의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래야 할 것이다. 미국 보스턴대학(Boston College)의 신학자 홀렌바흐(David Hollenbach)는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정의 개념을 뿌리로 삼아 기독교 정의의 이해를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설명한다.

성경의 정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분배 정의는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먼저, 소통적 혹은 상호적 정의(commutative justice)이다. 이 정의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주고받음에 있어서의 공정함 혹은 정확함을 그 본질로 한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 곧 상호간 존중의 기반 아래 마땅히 주고받아야 할 바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상호적 정의는 구약의 정의 곧 <미쉬파트>에 상응한다. 정의의 심판자(<소페트>)로서 하나님은 함께 사는 이들을 부당하게 힘들게 하는 이들을 징벌하심으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시 9:7-9).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정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면 받아야 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며, 또 받아야 할 보상이 있으면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공헌적 정의(contributive justice) 혹은 사회 정의(social justice)이다. 공헌적 정의는 소통적 정의 보

다 공동체의 삶 혹은 공동체의 선(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정의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들은 단지 마땅히 받아야 할 바를 정당하고 정확하게 받는 것으로서의 정의를 뛰어넘어, 공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 중요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랑을 가장 소중한 기준으로 삼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면 공공선 신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의는 사랑 곧 이타적 자기희생의 사랑에 그 동기를 둔다고 하겠다.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사회의 공동 자산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것이다. 구성원이 기본적인 생존의 기반을 확보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자산의 분배이다. 공적 자산을 분배함에 있어 기본적인 기준은 공과와 필요이다.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상과 대가는 성과와 실책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나 ‘필요’를 분배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필요한 만큼 더 주는 것이 정의가 된다. 이 점에서 기독교 분배 정의는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미쉬파트>의 원리가 여기 있다. 땅과 자산, 자유와 안전 등과 같이 인간 실존에 필수적인 조건들(혹은 권리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의 정의는 그들의 권리와도 같다. 다시 말해, 정의는 도덕적 규범인 동시에 권리인 것이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힘 있는 이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누려

야 할 권리들을 빼앗겼다면 그리고 마땅한 받아 누려야 할 권리들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면, 빼앗은 이들은 옳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은 의로우며 결백하다(시 146:7-9). 정의의 세상은 천부적 인권을 보장받고 누리는 데 차별이 없는 세상인 것이다.

하나님의 핵심 가치, 사랑과 정의 다양한 가치관, 생각,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이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공동체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지만, 긴장과 갈등, 때론 격한 충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이자 뜻인 사랑과 정의, 정의로운 사랑, 깊고도 깊은 사랑을 품은 정의를 견지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신자들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 살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모십니다

해외 의료선교 자원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교회 의료선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외 의료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의료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십니다.

1. 비전트립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해마다 의료선교팀을 요청합니다. 일정은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됩니다. 베트남에는 매년 가고 있으며, 그밖의 나라는 선교사와 해외선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용 초음파 검사기(Portable sonography)를 이용하실 수 있고, 약품의 구매와 선정 등은 의료선교부에서 도와드리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의료 사정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2. 해외 병원 긴급진료

베트남에 있는 중소병원 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 간호, 현지 의료인과의 교류 및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룡안 세계로 병원에는 2차레, 나짱 칸호아 병원에는 작년에 처음 갔습니다. 수목금 3일 또는 목금 2일 정도, 현지 병원 시설과 약품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거나, 고엽제 피해환자 진료 또는 병원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진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과 할 수 있는 일은 참가자와 현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3. 기타

각자 소명을 받으신 의료선교사역이 있다면 의료선교부에서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료선교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보내는 선교사든, 가시는 선교사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원하시는 의료인 또는 의료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의료선교부장 박준명(010-5557-3144), 해외의료선교팀장 김구엽(010-3344-2601)

목회칼럼

Finding God in a Teacup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its setting
the name of the Lord is to be praised. (Ps. 113:3)

I'm going to guess that many of us have never been busier. It's a point of pride to tell others how busy we are, working late, endless chores at home, and of course for students, studying every waking hour. Busyness is a kind of currency that we try to accumulate. The busier we are, the greater sense of self-worth we feel. "Sorry, I can't talk now. I'm busy."



Even when we are home, our mobile phones keep us ever on alert to the next email or text message that we need to respond to or the next notification from our social media apps.

In a 24/7, always-on world it's easy for the Christian faith to become just another task that needs completing, another item to check off our to-do list. We make time for our faith in the same way that we schedule an appointment: "Jesus, I think I can fit you in on Sunday morning between 9:30 and 10:30."

The frantic pace of modern life has created a division between the secular and the sacred, such that we treat them as two separate spheres that compete for our time and attention. But that doesn't have to be the case, at least not according to Reverend Tish Harrison Warren, the author of *Liturgy of the Ordinary*.

Liturgy of the Ordinary is the book that we read for the 2018 fall term of Tea-ology, the theological book club of the English Ministry. (In a small-group setting, we discuss a theological book over a cup of coffee or tea, hence the name "Tea-ology".) In *Liturgy of the Ordinary* Harrison Warren shows the reader how to find God in the ordinary events and routines of a regular day. Each chapter looks at something that the author does during the day—making the bed, brushing her teeth, checking email, and even sitting in traffic. Viewed through the lens of liturgy, these ordinary events and routines take on profound theological significance. The secular becomes sacred.

What could be less sacred than being stuck in traffic? Waiting in traffic brings out the worst in us...impatience, anger, and contempt for our fellow man. After all, we're busy. We have places to go! But Harrison Warren observes that "I get angry in traffic because it reminds me that time is not at my bidding."

We believe that time belongs to us, but the Christian liturgical calendar teaches us that time belongs to God. And because it belongs to God, all time is sacred, not only Sunday morning but Tuesday afternoon and next Thursday evening... even an hour spent stuck in traffic. Therefore, when we understand time liturgically, we are marked as "a global, alternative people" who live not according to the rhythms of commerce but according to the life of Jesus Christ.

찾잔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3)

모두가 이렇게 바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근과 끝없는 집안일로, 또 학생들은 언제나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말합니다. 바쁘다는 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면, 분주함이란 우리가 축적하려 애쓰는 일종의 화폐인 셈입니다. 바쁠수록 우리 자존감도 더 커지니까요. "죄송한데,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좀 바쁘거든요."

심지어 집에서 쉴 때조차, 스마트폰에서는 우리 응답을 재촉하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소셜미디어(SNS)의 알람이 끝없이 울려댑니다.

이렇게 밤낮없이 대기 상태인 세상에서는, 기독교 신앙 역시 다만 완수해야 할 또 다른 일거리, 지워버려야 할 할 일 목록의 한 항목이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마치 평소 약속 잡듯이 시간을 할애하곤 합니다; "예수님, 일요일 아침 9:30~10:30에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근대적 삶을 지배하는 광기 어린 속도는 성과 속 사이를 단절시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분리된 두 영역이 우리 시간과 관심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상의 예전(例典)』(원제: *Liturgy of the Ordinary*)의 저자, 티쉬 해리스 워런 목사에 따르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일상의 예전』이라는 책은 영어예배 신학독서모임 "Tea-ology(티-올로지)"에서 2018년 가을학기에 읽은 책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커피나 차(tea)를 한잔 마시며 신학적(theological) 도서들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라, 이름을 "Tea-ology(티-올로지)"라고 붙였습니다.) 『일상의 예전』에서 해리스 워런은 평범한 사건들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각 장은 저자가 하루 동안 하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구를 정리하고, 양치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심지어 교통체증에 발이 묶입니다. "예전(例典)"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러한 평범한 사건들과 반복되는 일상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속은 곧 성스러움이 됩니다.

사실 교통체증에 발이 묶이는 일만큼 성스럽지 못한 일이 또 있을까요? 교통체증에 시달리노라면 우리 안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솟아납니다. 성급함, 분노, 타인에 대한 모욕 등. 어쨌건, 우린 바쁘니까요. 우린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해리스 워런은 이런 관찰을 합니다. "나는 교통체증에 화가 난다. 이는 시간이 내 수중에 있지 않다는 걸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 소유라 생각하지만, 기독교 예전을 따른 교회력은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기에, 모든 순간이 성스럽습니다. 단지 일요일 아침만이 아니라, 화요일 오후나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심지어 교통체증에 시달리던 한 시간 역시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예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상업이 주조하는 리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전 지구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if we never stop to savor the ordinary pleasures
that each day affords,
“we’ ll forget how to notice beauty and
we’ ll miss the unmistakable reality of goodness
that pleasure trains us to see.”

In the chapter titled “Drinking Tea,” Harrison Warren writes about our need to cultivate a sense of pleasure in little things, like savoring a cup of tea. We must *cultivate* a habit of pleasure, she writes, because “workaholism and constant connectivity fight against our ability to be present to the pleasure of the moment.” There is always another email to respond to, chore to be performed, or even church ministry to be served. But if we never stop to savor the ordinary pleasures that each day affords, “we’ll forget how to notice beauty and we’ll miss the unmistakable reality of goodness that pleasure trains us to see.”

Harrison Warren even finds liturgical meaning in the daily ritual of brushing her teeth. Christians are people who live an embodied faith. Christianity is not only about what we believe with our minds but what we do with our bodies. Therefore, for Harrison Warren, taking care of our bodies by, for example, brushing our teeth each day, reminds us that our teeth are made by God for a good purpose. “Because of the embodied work of Jesus, our bodies are destined for redemption and for eternal worship,” she writes. “Brushing my teeth, therefore, is a nonverbal prayer, an act of worship that claims the hope to come. My minty breath a little foretaste of glory.”

From our waking to our sleeping, when we practice the liturgy of the ordinary we see the extraordinary love of God even in the most mundane events of our day.

**Liturgy of the Ordinary* will soon be available in Korean.

Pastor John Schneider

우리가 이 하루가 허락하는 일상의 기쁨을 음미하기 위해
멈춰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잊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단련한 시선이 포착하는
명백한 선의 실재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해리슨 워런은 “차 마시기”라고 이름 붙인 장에서, 우리는 차 한잔 맛보는 일 같은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감각을 도야(陶冶)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뻐하는 습관을 “도야”해야 하는데, 이는 “일 중독과 끊임없는 (온라인) 접속은 순간의 기쁨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해야 할 또 다른 이메일과 해치워야 할 잡무가 쌓여있고, 때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일마저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루가 허락하는 일상의 기쁨을 음미하기 위해 멈춰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잊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단련한 시선이 포착하는 명백한 선의 실재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해리슨 워런은 심지어 양치질 같은 매일의 의식에서도 예전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화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정신적으로 무엇을 믿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리슨 워런은 매일 양치하며 몸을 돌보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 치아를 지으셨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몸 또한 구속과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를 닦는 것은 비언어적 기도이며, 도래하는 희망을 선언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박하 향 나는 내 숨결은 곧 영광의 작은 선취입니다.”

이처럼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 때까지 일상의 예전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네 하루의 지극히 평범한 사건들에조차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예전』은 곧 한국어로도 번역됩니다. (역주: 현재 IVP출판사에서 번역 중이고, 올해 안에 출간 예정입니다. 번역서의 제목은 미정입니다.)

존 슈나이더 목사 / 손경민 전도사 역

사역간증

안성 하나원을 다녀와서

지난 주일(1/20) 안성 하나원에서 탈북자매들과 주일예배를 드리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원부와 함께 들뜬 마음으로 새벽에 교회를 출발 하였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꼭 가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26일 우리 교회에서 주최한 도시문화체험에서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원생 자매들과 5시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시간에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몸과 영혼과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가

여워 한없이 울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었지만 작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기대를 가득 가지고 하나원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한 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물어보았더니 몇 주 전부터 더 좋은 선물을 주는 불교 법당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잔한 충격이면서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흔들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나누어주어야 할까

하나님께 여쭙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손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선택의 삶이 보장되는 자유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소서. 상처뿐인 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유롭고 밝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꿈과 소망을 담아서 기도카드를 쓰도록 하여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안성 하나원 방문은 통일선교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남** 권사

* 3월 9일(토)에는 하나원 252기 정착 결연 사역 “다시 만나요!”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기나들이



손주안 아기

2018년 9월 20일생

1.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3.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빠 손용성 / 엄마 구혜진, 2019년 1월 27일 3부 예배



안이든 아기

2018년 11월 26일생

1. 온유한 인격과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2.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하며 세상이 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3. 삶을 통하여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매일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해주세요

아빠 안형은 / 엄마 이은영, 2019년 1월 27일 3부 예배

찾습니다

에코백을 드리고 싶어요

한 일년 쯤 전에 화장실에서 교인이 들고 있던 에코백을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얼굴도 성함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선뜻 드리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그분을 찾아달라고 에코백을 함글함글팀에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높이 26cm, 폭 34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 에코백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hamletter@daum.net으로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물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주님의교회 공동체 소통의 통로인 교회 홈페이지 개편을 앞두고, 교우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미디어관리위원회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담당 : 왕세윤 집사(010-6751-9870)

알립니다

1. 교구연합수요기도회(주관: 7교구)

일시 : 3/6(수) 오후 7:20~9:00 대예배실

- ▶ 겨자씨 모임을 연합 수요기도회로 개강합니다.
- 겨자씨 식구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교육목회원 교사대학 <미래 사회와 다음세대 신앙 양육>

일시 : 3/3, 3/10(주일) 오후 1:30~3:30, 3층 소년부실

주제 : 인공지능시대, 다음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김창환 박사)
교사의 영적 탄력성(강태신 목사)

대상 : 유아, 유소년, 청소년 교사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3. 양육클래스 봄학기 개강: 3/5(화)~6/8(토)

접수 : 2/24, 3/3(주일) 오전 8:30~오후 2:00 로비(1층)

문의 : 방순희 권사(010.3622.1368)

4. 3월 자녀축복 월삭기도회

일시 : 3/2(토) 오전 5:20~6:30

장소 : 본당(예배), 나눔(של만한물가, 로비)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 ▶ 매월 첫 주 토요일, 주님의교회 부모세대가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새벽을 깨우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세대와 함께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5.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공사 안내: 3/10(주일)까지

- ▶ 공사기간 중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하오니 계단 이용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영상예배가 가능한 제3집회실(1,2,3부), 소예배실(2부), 중예배실(3부)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 하나원 정착결연사역 봉사자 모집(20명)

일시 : 3/9(토) 오전 9:00, 찬양연습실(지하)

문의 : 박미향 집사(010.3202.0007)

2019년
주님의교회
교사대학3.03 주일
3.10 주일오후 1:30 ~ 3:30
3층 소년부실대상 /
주님의교회 전 교사
(유아교, 유소년교, 청소년교)문의 /
임경순목사 (010-8466-0605)미래
사회와
다음세대
신앙 양육

1주차. 3월 3일

"인공지능시대,
다음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김창환박사

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외교부상부 ASEM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교육과학기술(문)부 대학신진화위원회 위원
인재통계개발원 운영위원장
저서 "교육의 철학과 역사" "인재강국 독일의 교육" 외

2주차. 3월 10일

"교사의 영적 탄력성"
(Teacher's spiritual resilience)
강태신 목사

재 인천제일교회 가정사역부 팀장
前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학부 및 대학원 외래교수
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서 "영적 탄력성" 외 10여권

2019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교육안내

■ 교육일정 : 2019년 3월 14일 ~ 6월 13일

매주 목요일 오후 1-5시

■ 장 소 : 각당복지재단 강당 (종로구 경희궁1길 29)

■ 대 상 :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

■ 교 육 비 : 130,000원 (교재비포함)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 본인부담 50,000원

■ 특 전 : 교육 수료 후 200시간 봉사 시 소정의
시험 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 등록문의 : 김영미 부장 010-5356-9473

홍정미 총무 010-6482-2572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주님의교회
전화상담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